

개교기념예배, 도서관 개관식

9월 25일 66회 개교기념 예배와 함께 도서관 개관식이 있다. 먼저 도서관에서 헌판식 및 개관 기념 공모 미술·문학 수상 작품 전시가 있다. 이어서 대강당에서는 공모전 시상식 및 문학 수상작품 낭독, 개관 축하 영상 메시지 감상, 선생님들의 추천도서 소개 시간 등이 진행된다.

도서관 이름은 '독보도서관'.

1947년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신 김예환 박사의 호(獨步)를 빌려 그 뜻을 기리고자 했다. 김은미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본관(시온관) 뒤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2층 건물로 마련되었다. 1층은 서고 및 도서열람실(70석)이 자리 잡고 있으며, 2층은 토론실과 야간자율 학습실(44석)로 사용된다.

도서관장에 안인균 선생님, 전자도서관장에 염정호 선생님, 사무장에 홍승강 선생님이 임명되었고, 각 교과별로 8분의 선생님이 함께 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여름방학 동안 도서부 학생들이 본관 5층의 옛 도서관 자리에서 새 도서관으로 6천 권이 넘는 책들을 옮겨 정리했으며,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던 도서 기증 행사에서 400여 권의 책들을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기증받았다.



도서관 새롭게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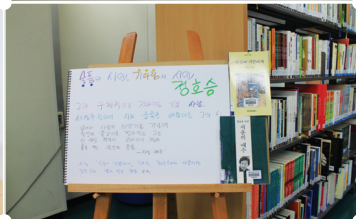
도서관을 들어서면 입구 좌우 벽면에 <WHY 읽어야 하나?>, <내 나름의 서평>, <환일 독서왕>, <도서관 포토제닉> 등이 게시되어 있다. 도서관 입구 좌우에는 도서관장실과 도서부·신문편집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도서 검색용 컴퓨터 3대와 함께 <독후리레이>와 <그대에게 읽어주고 싶다> 코너 등 독(讀)한 사람들의 참여 공간을 마련하였다. 편안한 소파에서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서가 뒤쪽 아늑한 의자에서 명상(?)을 할 수도 있다.

도서관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었고, 도서관 앞 담장 밑에 파라솔이 있는 원목 테이블도 마련하여 대출한 도서를 가을 햇살 아래서 읽을 수 있다.

2학년의 독서토론 수업이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교과가 타임테이블을 작성하여 희망 시간에 언제든지 도서관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월~금요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석식시간에 항상 이용이 가능하다.

이인범 기자



「희망메시지」

이사장·의학박사 김은미

봄부터 여름까지의 긴 날들을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자기 열매를 가꾸어오다가, 가을에 찬란한 황금빛 결실을 일제히 드러내는 교정의 은행나무들로부터 큰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 환일인들의 정신적 성장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을 이어서 밤늦도록 토론하며 공부하고 또 독서를 하면서 자기를 단련시키다 보면 어느새 꿈은 현실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 61대 학생회 임찬 출발

학생회장/ 최바다(2),	부회장/ 권용우(2),
학년장/ 신민기(2) 방재한(1),	부학년장/ 민세홍(2) 김정호(2) 김현중(1)
서기/ 최정수(2) 김준영(1),	기획부장/ 정호근(2),
총무부장/ 김형래(2),	선교부장/ 최병준(2),
자율생활부장/ 김재환(2),	예체능부장/ 임상영(2),
동아리지원부장/ 백승환(2),	봉사부장/ 전성재(2),
정보부장/ 홍정의(2),	환경부장/ 이민호(2),
생활안전부장/ 안용한(2),	보건부장/ 이석현(2),
문예부장/ 신동호(2),	홍보부장/ 이상윤(2)
기획차장/ 오명찬(1),	총무차장/ 김태욱(1),
선교차장/ 조은기(1),	자율생활차장/ 이원희(1),
예체능차장/ 기송현(1),	동아리지원차장/ 임준영(1),
봉사차장/ 주진영(1),	
정보차장/ 김시형(1),	
환경차장/ 김윤수(1),	
생활안전차장/ 김재민(1),	
보건차장/ 안동준(1),	
문예차장/ 강희범(1),	
홍보차장/ 김성훈(1)	



환일소식 <은행나무> 창간

-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신문

그 동안 1년에 한 번 발행하던 교지를 대신해서 이제부터 1년에 4번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 환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갈무리할 기사들을 엮어가며 보다 충실한 현재를 살고 더욱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교지편집부 5명이 만든 1호 신문은 소박하게 시작하였으나 2호부터는 더 많은 기자들의 활동으로 생동감 있는 환일인의 목소리를 담으려 한다. 다양한 종류의 소재와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더불어 사색하는 새로운 문화가 환일교정에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1 입학식

3월 4일 환일고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입학식,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설렘설렘

2 부활절예배

4월 3일 부활절 예배와 더불어 달걀 콘테스트를 열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반마다 정성스럽게 꾸민 달걀들을 내놓았다.

3 체육대회

5월 10일 봄이 막바지에 다다르기 시작하는 5월 즐거운 함성 속에 모두들 한마음이 되었다.

4 독서캠프

5월 24~25일 중간고사가 끝나고, 함께 책을 읽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창의적 사고로 책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멋진 경험을 했다.

5 성경퀴즈대회

6월 12일 반별 대항 성경퀴즈 대회에서 1학년 1등은 8반, 2학년 1등은 7반이 수상하였고, 교사전 1등은 안효진, 박경하 선생님이 왕중왕전 1등은 조희상(1-9), 2등은 김민혁(1-7), 3등은 서덕민(1-12)이 수상하였다.

6 학생회장 선거

7월 15일 후보는 4명이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 2학년 최바다 학생이 학생회장에 권용우 학생이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7 심령부흥회

7월 17일~18일 이틀간 대강당에서 임우현 목사님의 '크고 은밀한 일(렘 33:3)', '내게 능력 주시는 분(빌 4:13)'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심령부흥회가 있었다.



2학기 행사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학식 ↳ (8/16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학여행-고1 ↳ (9/2月~9/5金)수련활동-고2 ↳ (9/2月~9/4木)명사특강-고3, 고2 ↳ (9/4木), (9/11水)개교기념일 ↳ (9/26木)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학경시대회 ↳ (10/18金)수학경시대회 ↳ (10/19土)2013봉학마루제 ↳ (10/25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학능력시험 ↳ (11/7木)추수감사예배 ↳ (11/20水)졸업여행 - 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찬양 페스티벌 ↳ (12/20金)성가경연대회 ↳ (12/24火)성탄절 예배 ↳ (12/24火)	<ul style="list-style-type: none">졸업식 ↳ (2/7金)종업식 ↳ (2/10月)신입생 적응훈련 ↳ (2/24月)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중, 「방문객」 中)

‘Human 사람 人’

— 보안업체 ADT 캡스 한국지사의 대표 **Bradly Kent Buckwalter**

명사 특강에 CEO 한 분을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보안업체 회장인 분이라는 말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고, 또 외국인이라는 말에 한층 더 흥미가 생겼다. 과연 한국에서 CEO의 위치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게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을까? 강의는 한국어일까 영어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9월 4일 수요일을 기다렸고, 묘한 흥분감과 함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시간이 되어, 박수와 함께 키가 훗칠한 외국인 한 분이 강단에 올라왔다. 보안업체 ADT 캡스 한국지사의 대표, Bradley 회장님은 ‘Human 사람 人’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고, 나는 곧 그분의 강연에 빠져들었다.

우려와 달리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Bradley 회장님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로 강연을 열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낯선 땅에서 도전하고 극복해야했다던 회장님의 이야기는 강단에 가득 찬 학생들을 사로잡았다. 이후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교훈들은 그대로 전달되어 모두의 가슴을 흔들었다. ‘인생에 공짜 없다’며 회장님이 겪으셨던 작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할 때 함께 웃었고, 회장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며 내내 흥분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다. 한 학생이 회장님에게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Bradley 회장님은 ‘하나의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

을 하셨다. 이 대답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 조금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만큼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부 순서로 이용주 경호팀장님(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경호학박사이며 태권도 4단이라 함)의 호신술 교육이 있었다. 경호원들이 나와 시범 교육을 하고, 여러 학생들이 자원하여 즉석에서 호신술을 배워 익히고 조별 대항까지 벌였다. 마지막까지 활력이 넘치는 강연으로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한솔 기자



‘생각의 힘’

— 문화학원 이사(前서울시장) **오 세 훈**

이번 2학기 명사 특강으로 오세훈 이사님이 초빙되었다.

텔레비전으로만 접하던 분을 직접 만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굉장히 기대가 되었다. 명사가 오신다기에 친구들도 평소보다 약간 들뜬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나고 오세훈 이사님이 들어오셨다. 텔레비전에서 본대로 굉장히 서글서글한 인상이었다. 그리고 곧 강연을 시작하셨다. 시작은 여느 다른 분들과 같은 진행을 하셨으나 곧 강단에서 내려와 무선 마이크를 잡으셨다. 상당히 신선한 분위기로 스타트를 끊으셨다.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옆을 지나다니시며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 여태까지 어떤 강사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신선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 오셨다.

이사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다. 단순한 생각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깊은 생각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설명해 주셨다. 그중에서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셨다. 사람을 A, B, C로 나눈다면 마지막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공한 사람이 A 단계로 분류된다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역설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국 시 한

편을 소개하며 ‘정직한 비평가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아이들에게 칭찬 받는 동네아저씨’가 되라고 하셨다.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갔다.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팍 차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신동호 기자



작은 실천으로 지켜내는 독도의 진실

— 제4회 독도사랑글짓기국제대회 논술부문 금상 수상작 2학년 5반 김 현 섭

어릴 적 나는 형과 체격이 비슷해서 서로의 옷을 바꾸어 입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하게 각자의 옷이 구분되었고 각자의 용돈으로 산 옷들은 따로 보관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내 옷을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때 굳이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 후에도 빈번하게 형은 내 옷을 입고 외출했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나는 형에게, “이거 원래 내 옷인데 왜 형이 입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형은 정색을 하며 “이거 원래 내 옷인데? 내가 계속 입었잖아”라고 대답을 했다. 처음부터 바로잡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도는 원래 전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자주 영토였다. 하지만 일본은 내 형이 내 옷을 입고 자주 외출을 했던 것처럼 국제 사회에 독도문제를 빈번하게 내비쳤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문제 삼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자 일본은 정색을 하면서 독도가 자기 땅임을 우기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독도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자신들의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기는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동안 일본의 계획적인 침략에도 방관했던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요즘 독도문제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를 보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는 오랜 기간 미해결 상태로 진전의 모습도 없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언론을 달구기만 한 채 나타나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그런지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때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다. 늘상 똑같은 얘기라는 식상함을 먼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토로할 뿐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태도가 지금보다 더 크게 번져간다면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조차 주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

국민들의 방관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과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나의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인 나로 하여금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 있다. 바로 김성도 · 김신열 부부가 그 분들이다. 이 부부는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며 독도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주민이다. 이 분들은 1991년 11월 17일에 독도로 전입하여 칠순의 나이를 훌쩍 넘긴 현재까지 일본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알리기 위해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부가 독도에 거주한 최초의 주민은 아니다.

무인도처럼 버려져 있던 독도로 이주하여 1965년부터 1987년까지 홀로 독도를 지키며 사셨던 고 최종덕씨가 최초의 독도 주민이었으며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김성도 · 김신열 부부가 지금까지 독도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분들은 국제 관계까지 얽혀 있는 거대한 독도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고 때마다 뉴스거리가 되는 독도 문제에 대해 식상해하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의 미약함을 탓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도를 지키려면 그 곳에 가서 살아야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지금까지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지켜왔던 것이다. 그리고 김성도 · 김신열 부부는 최근에 ‘독도사랑카페’를 열어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알릴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근거를 찾고 시민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기구에 알리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말만 무성한 독도 문제에 대해 이 분들의 작은 실천은 세상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분들의 뜻을 우리들이 이어받아 자신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작은 실천들을 감당 해내려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역사적 기록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다. 독도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때는 512년 삼국사기이고 1990년 10월 대한제국 시대까지 이어진다. 즉, 무려 약 14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기록 속에 독도는 그들의 땅이 아닌 한민족의 땅으로 기록되고 있다. 둘째, 지도상에 표기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표기했고 일본민족의 지도인 일본 태정관, 대일본전도에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표기하고 있다. 셋째, 일본 주장 측의 오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 일본이 독도가 그들의 땅임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거리상의 이유, 과거의 조약 등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 이유들은 차례대로 반박할 수 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의 땅과 더 가까우므로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토와 더 가깝다. 또한 일본은 과거의 조약을 토대로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의 조약들은 우리나라가 부당한 관계에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독립 후에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었던 국토를 일본에게서 되찾게 되었다. 그에 따라 독도도 우리나라 국토로 반환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들은 모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의 방관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역사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인지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신념들을 실천해나간다면 말만 무성했던 독도 문제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독보도서관 개관 기념시

여기에서 비롯하리라

교감 최 상 호

멀리

한강이 발 아래로 흐르고

정기 온통 모였다는 인왕산이

눈높이로 이어지는

진리의 공간,

천혜의 명당.

오래 전 믿음의 선각자가

무릎 꿇고 기도한 배움의 자리에

이제 다시

봉학이 은빛 날개를 펼치니

독보도서관!

홀로 걸어가는 정신의 깊이를 닦아

가까 거거

글 읽는 소리는

종소리 마냥 퍼져 가리라.

저기 강물의 흐름을 보아.

시작은 언제나 소박하지.

저 장대한 모습도

처음에는

종이배 띄우던 작은 물줄기였으리니

맑은 웃음이

옥빛 하늘에 무한한 파문을 일으키며

이제

세계를 향한 꿈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하리라.

여기 이 작은 터전에서

씨 뿌려지리라.

야간자율학습실 새 단장 – 3개 학년 모두 전용 자율학습실에서

1학년은 독보도서관 2층(44석)에서 23시까지
청운실(145석), 1-12교실(36석)에서 22시까지

2학년은 5층 세종실(48석)에서 23시까지
시청각실(50석)과 웅비실/국어6실/
(구)서고(150석)에서 22시까지

3학년은 7층 세종실(55석)과 봉학실(125석)에서 23시까지
4층 소강당(80석)에서 22시까지 자습한다.

1실 1감독으로 자율학습이 실시되며,
그 중 독보도서관과 세종실은 학부모님이
22시부터 23시까지 감독한다. 모든 전용자
율학습실에는 칠판과 마이크 시설이 갖추
어져 있으며, 학력평가 직후에는 주요 과목
의 멘토 교사가 해설 수업을 진행한다.

강원영 기자



미술
부문

금상 한 범 수(2) **은상** 이 원 철(1), 이 건 우(1), 전 원 구(2)
동상 한 지 호(2), 이 동 윤(1), 김 상 옥(1), 박 상 건(1)

문학
부문

금상 이 재 현(2) **은상** 정 영 찬(2), 김 형 래(2), 김 태 욱(1)
동상 권 원 석(2), 최 정 수(2), 노 종 혁(1), 김 영 동(1), 황 영 웅(1)

도서관 그 곳에서

1-7 김 태 욱

방과 후 자주 갔던 도서관 그곳에서
 삼국지 설록홈즈 호밀밭의 파수꾼
 수많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만나다

생각이 많아져서 정리하고 싶던 날도
 반기문 총장님이 나에게 답을 준다
 걱정마 유엔 수장 될 수 있어 말해주는 도서관

봉숭아꽃

2-3 이재현

따가운 햇볕 내리쬐는 오후
 발걸음 재촉하며 학교 도서관으로 향한다.

목덜미에 떨어진 여름은
 소설책 꽃힌 책장에 꽂아두고
 돌아서다 만난 봉숭아꽃 한 송이

문득 바라본 세상이 그에게는 책보다 황홀한 것이었을까?

수많은 책들을 외면한 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들어가는 이파리를 뒤로한 채 세상 향해 줄기를 뻗었다

뜨거운 태양 이글대는 오후
 쏟아지는 햇살 등진 채 나는 책을 읽어나간다

마중물이 되어

여름은 소리 없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가을이 와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특히 세종반 학부모님 감독은,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힘든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냐 하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중간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진취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마중물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첫걸음일 때 그 시작은 누구나 미약합니다. 두려움과 설렘의 감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때 적당한 마중물이 있다면 이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은 참으로 기묘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좀처럼 다가서지

않습니다. 누군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만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마도 그 마중물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감독을 결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두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하신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흐뭇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세종반이라 다를 거라 하시더니 각자 자기 공부에 열중하고 줄리면 서서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고 기분 좋게 감독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어머님께서도 꼼꼼하게 학생 인원수 파악하며 쉬는 시간인 8시 30분에 감독을 교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어머님께서도 감독할 수 있어 영광이며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습니다. 학부모님 감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잘 관찰할 수 있고 자녀의 친구들도 익힐 수 있어 자녀와 대화도 더욱 많아지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한마음 일입니다. 환일고 학생들이 3년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환일고 학생들을 잘 보살펴 줍시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는.....

2-1 김 형 래

향기가 난다
 봄날의 향긋한 꽃내음처럼
 여름의 울창한 숲 속 이끼와 나무내음처럼
 가을의 달콤한 과일 익어가는 내음처럼
 겨울의 구수한 군고구마 익는 내음처럼
 그렇게 푸근하고 정겨운 향기가 난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는 향기가 난다.

그림이 보인다
 봄날의 흩어지는 벚꽃처럼 아련한 첫사랑의 모습이
 여름의 더위를 한 번에 물리칠 등골 오싹한 추리소설 주인공이
 가을의 높다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미래과학 이야기가
 겨울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가
 그렇게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그림이 보인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는 희망이 보인다

향기 나는 책이 있는 도서관이 좋다
 따뜻한 추억과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도서관이 좋다
 난 오늘도 도서관에 간다..

책

2-3 정 영 찬

펜은 총보다 강하다
 작가의 손에 쥔
 펜에서 나오는
 검은 먹물은
 어떤 총알보다 뜨겁다
 펜을 장전한 책 한 권
 나를 겨냥한다
 지나가는 여자들보다
 매끈한 책 한 권 들고
 들어온 도서관은
 시원해도
 밝은 빛처럼
 검은 먹물들은
 운동장의 열기보다
 뜨겁게 들어온다



- 야간자율학습 감독 소감문 학부모 박 연 순

서울대 창의 탐방을 다녀온 후

- 1학년 1반 권 용 학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달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도착했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상쾌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문화관에 들어가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첫번째로 수리과학부 김홍중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어른이 되는 때에 관한 것이었다. 대개 어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그것은 오해라고 하셨다. 또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들 중에서도 어른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순간 자신이 배운 분야에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주변과 담을 쌓고 자만심에 빠져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다. 일단,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사람은 그릇과도 같아서 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 성격까지도 바뀐다고 하셨다. 결국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면 그와 닮아갈 것이다. 둘째, 매일 새로워짐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에 맞게 바뀌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을 계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 노력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라고 하셨다. 논어에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따라서 좋아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 것이라고 하셨다. 어쨌든 교수님이 직접 ppt까지 준비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했다.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점도 말이다.

그다음으로 학생동아리 및 중창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화려한 춤과 아름다운 선율보다는 그 사람들의 열성과 열의가 느껴져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실외활동이 이어졌



다. 박물관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이 아닐까 싶다. 조그마한 유물들을 보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길이의 탁본이 나오니 놀랐다.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것을 느꼈

다. 그 후에 점심을 먹고 규장각에 가게 되었다. 국가의 각종행사를 그린 의궤도 보였고,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도 눈에 띄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규장각 글씨가 써진 현판이었다. 숙종의 어필이었는데 당당하고 시원시원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은 글씨가 뛰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서울대학교 창의 탐방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니었을까.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올 기회가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해봤던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만약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이고, 그래도 올 수 없다면 다른 대학교를 가면 되는 것이다.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낙오자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자가 되고 싶다.

미국에서 느낀 6.25

- 1학년 11반 최 준 호

사단법인 선봉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육군이 후원하는 ‘한국전 참전국 용사들에게 선봉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고등학생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본부의 후원으로 미국여행을 다녀온 학생의 글과 편지를 소개한다.

나는 솔직히 6.25 전쟁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전쟁에 대한 일들과 전쟁 때 느꼈던 그들의 감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미국의 문화만 경험하고 관광만 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때마침 6.25 전쟁이 끝났던 60주년이었다.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면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칭찬은 끝도 없었고, 난 이런 활동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참전용사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해준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여행 중 기억에 제일 남는 것은

Las Vegas 에서, 참전용사들 앞에서 내가 쓴 편지를 읽었던 것이다. 주변 카메라도 부담스러웠고,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 긴장도 되었다. “I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fighting for our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라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나누면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 전쟁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슬퍼 보였고 한국인의 감사함을 전할 때에는 감동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 때 그들이 6.25 전쟁의 기억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그들과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미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했던 열흘간의 기억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다시는 이 땅에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고 재차 다짐해본다.

Dear American Korean War Veteran,

I am a freshman at Hwanil High School in Seoul.

I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fighting for our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I always feel grateful about having soldiers, like you, who were willing to protect South Korea even when their lives were at risk.

In Korea, we learn about the Korean War from our teachers and from our grandparents. Through my school, I visited the War Memorial of Korea, which is in Yongsan, Seoul. At the Memorial, I learned about General MacArthur's role in the Korea War. I appreciate what he and all of the Americans did and I will never forget how they helped South Korea.

From my great grandparents, I learned how during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military killed many people. I also learned how people couldn't buy enough food to eat, so people were dying because of starvation.

The victory of the U.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lead to many positive changes in South Korea. Just a few decades ago, South Korea was a country that needed financial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but now, South Korea has become a country that can give a helping hand to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huge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our country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 place where people can live happily. Thank you for saving our country.



제주 수학여행을 가다!

지난 9월 2일~9월 5일 환일고등학교 1학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인 만큼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었다.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전용차량에 탑승하여 올레 14 코스(한림항-협재해수욕장 5km가량)에서 걷다가 협재 해수욕장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니 캄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그 후 숙소로 도착해서 석식을 먹고 휴식 및 자유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6:30분 기상하여 조식 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메이즈 랜드에서 미로체험을 했다. 그 후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하여 멋진 경치 속에서 실컷 바람을 즐겼다. 올라갈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올라가서 보니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오후에는 레포츠 랜드에서 자일레펠 및 사계절 썰매체험을 했고, 그 후 조랑말 승마 체험을 한 뒤 숙소로 돌아가 석식 후 휴식 및 자유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 한라산 등반을 위해 아침을 든든히 먹고 차량에 올랐다. 한라산 어리목-영실 코스로

등반했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웠고, 심장이 터질 듯이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한라산을 가득 채우는 듯 했지만, 아름다운 경치에 한껏 매료되었다. 중식 후 기암괴석이 장관인 주상절리를 보고, 세리월드에서 카트체험을 했다. 그 후 숙소로 돌아와 석식을 먹고 자유 시간을 가졌다. 9시 쯤에는 야식으로 치킨과 피자가 도착하여 다들 맛있게 먹었다.

마지막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조식을 먹고 방을 정리하여 8:10분에 출발하였다. 먼저 항몽 유적지에서 설명을 듣고, 유적지를 관람한 뒤 제주 토산품점에 가서 기념품을 구매하며 한라수목원을 관람했다. 그 후 중식을 먹은 후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고 3시 10분에 제주공항을



뒤로하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지금도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한라산의 경치가 자꾸 떠오른다. 속이 뻥 뚫리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던 곳, 따가운 햇볕으로 지쳤을 때 불어 주던 그 바람 좋던 곳.

가기 전부터 기대와 들뜸에 휩싸였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도 많았고, 아이들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도 되었다. 되돌아보니 나의 큰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즐거운 수학 여행이었다!

김영동 기자



태안 늦여름의 수련회

9월 2일 월요일, 환일고 2학년 학생들 377명이 수련회를 떠났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청포대 쉼터 유스호스텔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견학, 장기자랑, 미스 환일 대회, 갯벌체험과 해수욕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다.

장기자랑에서는 춤, 노래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허은범(2-4)과 최바다(2-5)의 댄스 배틀, 오승수(2-1)의 '바람기억' 열창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다음날 갯벌체험

에서는 모래밭 줄다리기, 조개 캐기, 독살체험, 모래성 쌓기 등 온몸을 던지는 활동을 했다. 해수욕장 체험에서는 솔 모랫길 걷기 활동 후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자유 시간을 누렸다. 파도가 잔잔하고 물 속에 한참을 들어가도 깊지 않



아 마음껏 뛰놀며 추억을 만들었다.

마지막 밤에는 캠프파이어가 진행되었는데, 지도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학생 모두가 마치 파티장에 온 듯 신나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원준 기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 2학년 1반 문 승 근

학창시절의 마지막 수련회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수련활동을 해보았지만, 이번 수련활동이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다.

나, 너, 우리라는 말속에 하나가 된 우리 환일고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서로 어색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환일고 2학년1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항상 함께해주신 우리 청지사 쌤들, 매 프로그램 마다 함께 해주셨던 멋진 2학년 담임선생님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더 밝게 화답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욱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고2시절의 수련활동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표도 확립되고 나의 정체성도 알아가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아서 귀한 시간이었다. 고2 생활을 하다보면 성적이란 큰 장애물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이번 수련활동을 통해서 힐링 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물 좋고, 산 좋은 장소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은행나무》신문기자 모집

- 대 상 : 환일고등학교 1·2학년
- 지원방법 : 1차 - 기사문 1편 제출
2차 - 면접(1차 통과자)
- 제 출 처 : 도서관 신문편집실
※뽑힌 기사문은 다음호에 게재함

길치

- 2학년 5반 김 재 원

나이가 많은 적든, 돈이 많은 적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인생에 있어 모든 이들은 길치다. 우린 단 1분, 1초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두가 초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막다른 길 끝에서 앉아 실컷 울어도 보고, 왔던 길을 또 돌아가며 헤매기도 해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표지판이 안내해주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수십 년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구몬 숙제를 하기 싫어 스트레스 받았던 때, 중학교 때 부모님을 실망시켜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때 당시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거칠었을까. 하지만 지금 돌아해보면 배울 점은 배우고 잇을 점은 잇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진 것 같다. 내가 걸어온 길이 그랬듯이 걸어갈 길도 그럴 것이다. 물론 더욱 험할 것이다. 물론 더욱 지칠 것이다. 하지만 길이 험했던 만큼 발바닥의 굳은살 역시 더 단단해졌다. 내가 결코 길을 헛되게 걸어오지 않았다는 일종의 증표이다.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니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잡아야 하는데 너무 빠르고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다. 더 이상 어른들의 잔소리와 걱정과 불안감들이 귓등에만 쌓이지 않는다. 급한데 몸은 게으르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에 비해 너무 힘들다. 하지만 역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지금 헤매던 길도 또한 한눈에 보일 것이다. 조금만 더 걷자. 조금만 더 내 길을 만들자. 조금 더 헤매고 길을 잃자.

서른 살 자화상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 3학년 1반 박 태 현

- 3학년 1반 김 명 신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다. 내일부터 이곳에서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나는 이곳에 주한 제네바 유엔 대사관 소속 1등 서기관으로 오게 되어 국제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외교 안보연구소 소속 국립외교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 외교관 연수를 받고 외교관이 된 지도 2년이 다 되어간다. 연수 기간 동안에 외교관이라는 꿈 하나만 꾸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내일 열리는 포럼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문가들과 정상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구촌 사회의 미래를 의논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국제적 무대에 내가 국가를 대표해 우리나라를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행복할 따름이다.

내 나이 30살이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돌날’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다. 이 공연은 나한테 참 뜻깊은 공연이다. 19살 ‘돌날’이라는 희곡을 읽었을 때 나는 언젠가 이 희곡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희곡을 내 몸에 녹여서 표현하는 이런 매력이 내가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는 이유 같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명시절을 거쳐왔지만 좋아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무작정 성공만을 쫓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고 3 때 보았던 글이 떠오른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글은 지금 내 인생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

교외 수상자 소개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표창장	김광배 선생님	6. 9 제4회 서천한산모시 2013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포켓 9볼 고등부(남) 2위	노윤석(1-6)
5.15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장	이기철 선생님	6. 9 제4회 서천한산모시 2013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캐롬3쿠션 고등부 단체전 공동3위	변기훈(2-1)
5.15 교육부장관 표창장	박시하 선생님	6. 9 제4회 서천한산모시 2013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캐롬3쿠션 고등부 단체전 공동3위	김주환(3-1)
5.15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장	허동명 선생님	6.12 제25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수학 고등3자연부문 장려상	조대양(3-9) 이윤규(3-7)
5.22 제35회서울특별시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지도교원상	김희경 선생님	6.22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상장 [꿈터 1기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참여]	홍한빈(2-11)
8. 3 제4회 독도사랑글짓기국제대회 독도사랑 모범실천학교상 단체상1위	변호경 선생님	7.18 한국전 참전국용사들에게 선물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등학생부문 최우수상	최준호(1-11)
6.20 제15회 생글 논술 경시대회 단체부문 우수상	환일고등학교	7.19 나라사랑실천학교교내표어공모전	정영찬(2-4) 김희웅(3-5) 마재서(1-3) 송준호(3-5)
8. 5 제4회 전국 고교 논술경시대회 논술우수교교상	환일고등학교	7.19 한국전참전국용사들에게선물감사편지쓰기공모전-가작	홍정의(2-9) 조재한(1-10) 최석진(2-11) 최수주(1-8) 한성훈(2-8)
3. 1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2월 우수기사 작성자상	조광우(3-8) 이희준(3-7)	김경수(1-10) 김준우(1-8) 김준석(1-10) 김홍순(1-1) 박재성(2-6)	이지환(1-1) 임준영(1-8) 임종웅(2-11) 조은기(1-3)
4. 1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3월 우수기사 작성자상	김민준(3-9)	7.25 제26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동상	신진욱(3-10) 주수현(3-11) 조광우(3-8)
5.12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 경연대회 라이브부문 동상	이두희(3-10) 정석주(3-9)	8. 3 제4회 독도사랑글짓기국제대회 논술부문 금상	김현섭(2-5)
5.15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학생상 창의,인성 부문	김용선(3-1) 이윤규(3-7) 황선필(3-2)	8. 3 제4회독도사랑글짓기국제대회산문부문최우수상	김민석(3-3)
5.22 제35회 서울특별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장려상(3등급)	조광우(3-8)	9. 6 제3회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순환도전」 자원순환활동 공모전 우수상	장규화(1-3) 장규동(1-3) 필감공(1-8) 정승원(1-4) 홍록기(1-6)
5.22 제35회 서울특별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상(2등급)	주수현(3-11)		
6. 1 2013년도 제14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서울지역대회 동상	이형구(3-4)		
6. 9 제4회 서천한산모시 2013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캐롬3쿠션 고등부 공동3위	김태환(2-1)		
6. 9 제4회 서천한산모시 2013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스누커 6-Red 고등부 2위	노병화(3-5)		